

###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 : 마태복음 7:13-29

요절 : 마태복음 7:13,14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멀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지금까지 천국시민의 헌장(憲章)이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인 산상수훈(山上垂訓)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結論)으로 두 종류의 문, 두 종류의 나무, 두 종류의 집(기초)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양자택일(兩者擇一)의 문제로 어느 것을 택하느냐는 선택의 자유이지만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자기가 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를 좁은 문으로 초청하십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순종하여 좁은 문으로 나아가 영생에 이르는 진정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I. 좁은 문과 넓은 문 –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13-14)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멀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13,14)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Eἰσελθετε)”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명령문 현재로써 계속해서 들어가기에 힘쓰라는 뜻입니다.

흔히 ‘좁은 문’ 하면 유명한 앙드레 지드(Andre Gide)의 장편소설 『좁은 문』이나 혹은 입시나 취업을 떠올립니다.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 어릴 때부터 치열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아예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청년 때에만 힘들면 그래도 좋은데 나이를 먹어도 힘들다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대학문보다 더 좁은 취업문이 있고 취업문에 들어가면 그보다 더 좁은 승진문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도 공부하던 그때가 좋았지 취업준비 하려고 도서관에 있던 그때가 좋았어.’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 말은 멋있지만 실제로 자신을 녹이고 불태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그것은 어렵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며 팔복을 누리며 사는 것, 행동뿐 아니라 마음까지 다스려 노하지 않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지 않으며 음욕을 품지 않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고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쪽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져가는 자에게 걸웃까지 벗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까지 가주는 것,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상을 바라고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할 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것,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남을 비판하기보다 대접하고 섬겨주는 것, 이런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것 하나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찾는 이가 적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삶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데도 구태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 끝에는 구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쉽고 편한 길 재미있고 즐거운 길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나의 성공과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도 보면 처음에는 성경공부 하고자 오는 사람은 많지만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문은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피곤하고 지치고 고생을 하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갈지라도 이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 길을 가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괜히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 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로 들어가고 좁고 협착한 길을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왜 그처럼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편하고 쉽고 안정된 길을 가도록 다 마련해 줄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기 때문에 기어코 그 길을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3: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make every effort)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 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래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써야 할 이유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좁은 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를 볼 때 좁은 문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좁은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죄로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 수많은 영혼을 생명의 열매로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다시 명령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 16:24,25)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조건 문을 넓히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싸구려 짹퉁 복음으로 변질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힘든 것은 힘들다,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틀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일생동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분명히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을 가려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각오를 해야 합니다.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영적 즐거움을 구하고자 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 유행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자 해야 합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고독합니다.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살려고 해?” “왜 너는 우리랑 같이 어울리지 않는 거야?” 이런식의 말을 듣게 되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찾는 이가 적은 길이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정말 이 길로 가도 괜찮을까?’ 은근슬쩍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은 찾는 이가 적지만 영생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넓은 문은 어떻습니까? 문이 크고 길이 넓어서 걸어가기가 쉽습니다. 편합니다. 함께 가는 사람이 많아서 즐겁습니다. 재미있는 볼거리 맛있는 먹거리 화끈한 놀거리들이 많습니다. 요즘 세상에 즐길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TV 채널, 인터넷 유튜브(YouTube) 사이트들이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육신의 본성이 요구하는 죄를 즐길 수 있는 유혹의 문, King Club의 문, Queen Club의 문 등 각종 패락의 문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겨납니다. 새벽까지 불야성(不夜城)을 이룹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끝입니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하였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인간의 본성을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 열매는 죄의 열매요, 영원한 파멸입니다. 잠언 14:12 절은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은 인생의 결국을 생각하지 않고 그때그때 편하고 편리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정만 보지 말고 그 끝이 어떠한가 생각해야 합니다. 과정이 힘들어도 끝이 좋아야 진정으로 좋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꽤 늙은 75세 나이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우상숭배의 죄악이 관영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을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의 말씀과 함께 “**너는 복이 될지라.**” (창12:1-2)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늙은 나이에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식 없는 문제를 꼬투리로 그를 여러 모양으로 훈련하셨습니다. 자식을 주신다는 약속이 10년이 넘도록 자식을 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는다면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엘리에셀을 나의 후사로 삼겠다고 데모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리 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창15:5)는 믿기 힘든 엄청난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쓰실만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마다 육의 소욕과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말씀도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요, 은총의 길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복덩이가 되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롯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여 넓은 길로 갔습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였고 물질을 사랑하였습니다. 그의 신앙은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이었습니다.

. 그는 양다리 걸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죄악의 씨를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육의 일에만 탐닉(耽溺)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육체의 쾌락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캐치 플레이 는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노아만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차 올 심판을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드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연휴가 되면 사람들은 너나할 것 없이 산과 들과 강으로 놀러 갔지만 그는 가족들과 함께 성경공부하고 기도하며 구원의 방주를 짓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그를 어리석은 사람 시대에 뒤쳐진 사람 꽉 막힌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휩박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온갖 오해와 비난을 받으면서 고독하게 이 길을 갔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들고 좁은 길로 가기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는 홍수 심판 때에 잘 나타났습니다. 넓은 길로 가던 사람들은 물을 잔뜩 먹고 다 멸망하였지만 좁은 길로 갔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장래가 보장된 넓은 길, 탄탄대로(坦坦大路)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넓고 화려하고 멋있고 영광스러운 길을 가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이 지금은 당장 재미있고 편하고 즐거운 길일지라도 마침내는 멸망으로 치닫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이 길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길,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미련하고 무모하고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처럼 좁은 길을 선택했을 때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자신도 생명을 얻고 수많은 자신의 동족들도 생명의 세계로 인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결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물건을 사고 눈요기를 위해서 찾아가는 거리가 있습니다. 42번가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라는 광장(廣場)이 있는데 그 주위에는 각종 유명한 백화점 상점 영화관 24시간 외설적인 영화와 쇼를 상영하는 그런 극장들이 즐비(櫛比)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도 그 거리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broad way, 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는 인생의 쾌락과 즐거움과 재미를 맛볼 수 있는 것들이 다 모여 있지만 그 결국은 타락이요, 멸망입니다. 9.11 테러가 팬히 뉴욕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좀 재미없고 힘들고 고생스러울지라도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넓고 편한 브로드웨이로 가다가 멸망에 이르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므로 구원에 이르고 생명을 얻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기보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좁은 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넓은 문은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안일을 사랑하는 죄성(罪性)이 있어 무엇이든지 쉽고 편하게 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 편안히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때그때는 쉽고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하는 것은 생명이냐 사망이냐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고 있지만 인간의 본성은 이 길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넓은 길과 좁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당히 중간 지대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소향) 고백하며 지속적으로 좁은 길을 걸어 가야 합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비록 힘들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알고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II.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15-23)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15) 예수님은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가라는 말씀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입니다. 양은 온유하고 부드럽습니다. 순수하고 사랑스럽습니다. 반면 이리는 교활하고 잘 속이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곁으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넓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한 번만 회개하면 되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존 스토프(John Stott) 박사는 본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외적 차림새, 그의 매력, 학식 심지어 교회적인 명예 같은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너무도 고지식하게 그 사람이 철학박사인 것, 목회학 박사인 것 혹은 교수나 주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라 가정해버린다. 우리는 그 외양의 이면에 있는 실체를 보아야 한다. 그 양가죽 아래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가?”

『천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천과 믿음을 곁길초장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수다쟁이(talkative)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말 많은 동네(Pratingrow)에 사는 달변(saywell)씨의 아들로서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성경말씀도 잘 인용합니다. 성경말씀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주로 쉽고 편한 길만 이야기 합니다. 회생이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길인 것처럼 미련한 사람들이 가는 길인 것처럼 매도(罵倒)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원파나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왜곡한 거짓 진리를 그럴 듯하게 포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처음에는 사랑이 넘치는 천사처럼 다가와 사람들을 포섭합니다. 그러나 후에는 신도들을 착취하고 자기의 탐욕(貪慾)을 채웁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은 그 정체를 이미 다 드러냈기 때문에 도리어 주의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통 교단 안에 버젓이 머무르면서 그 정체를 감추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기복 신앙 북미에서는 번영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번영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게 된다는 메시지만을 줄기차게 부르짖습니다. 죄와 회개,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 관련된 부담스러운 메시지는 전혀 전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결국 사람들을 큰 문, 넓은 길로 이끌어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자신들이 참 선지자인 것처럼 좋은 나무 행세를 합니다. 교묘한 교리를 만들어서 순진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번에 신천지에서 탈퇴한 두 사람이『나는 신천지 이단에서 20대 5년을 바쳤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을 읽어 보니 이단들이 얼마나 위장을 많이 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2017년에는 전남대 총학생회 선거에도 개입해서 학생회를 장악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항상 거짓 선지자들, 종교 사기꾼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물질주의 한탕주의 체력주의 신비주의 등의 미끼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못된 나무들이 많습니다. 벼섯도 독벼섯이 더 예쁘듯이 못된 나무들이 더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실체가 드러나고야 맙니다. 못된 나무는 결국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16-20)

우리는 열매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이나 역사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인격의 열매, 생활의 열매는 속일 수 없습니다. 모든 나무가 그 나무에 적합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연법칙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떨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콩 심은데 콩 나오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는 속일 수 있으나 삶으로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과정은 헛갈릴지 모르지만 거짓과 속임수는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시간 속에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근본적으로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나무가 되려면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면 자연히 죄짓기를 두려워하게 되어 범죄는 줄어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나무는 결코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보통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3년에서 5년을 키워야만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아주 맛있는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 7년에서 10년은 키워야만 합니다. 그것도 가지치기를 해주고 줄기를 잡아 매주고 거름을 주고 열심히 병충해를 잡아 주어야만 맛있는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데는 이처럼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요구합니다. 반면에 나쁜 나무는 어떻습니까? 가시나무나 엉겅퀴나무는 전혀 들보지 않고, 거름을 주지 않아도 잘 큽니다. 밭에 잡초는 반갑지도 않은데 며칠 사이에 금방 밭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이처럼 나쁜 나무들은 들보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빨리 자랍니다. 요란스럽게 야단스럽게 자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쁜 나무, 못된 나무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본래 돌감람나무로서 본성이 부패하여 쓸모없는 열매만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아담의 교만과 불순종의 피와 가인의 반발심과 팀욕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인바 됨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영향 분을 공급받아 겸손과 순종,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5:22,23)

좋은 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인 바 되어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자연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15:4,5) 우리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열매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21) 예수님은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즐기기만 하고 실제 생활에서 행치 않을 위험을 보셨습니다. 사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보배로운 말씀이기는 하나 실천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고 지내기가 쉽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입술로만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입술만 천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22,23) 예수님은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어떤 사람들을 예시로 드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남다른 은사를 받았고 큰 업적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이적까지 행하면 사람들이 속기 쉽습니다. “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네요” 다른 사람도 속고 자기 자신도 속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로서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몇 사람이 아니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득의양양(得意揚揚)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도무지 모른다고 하십니다. 모른 체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이 악을 행하는 자들아**” “you evildoers!” “떠나가라” “Away from me”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는 그들이 행한 것이 예수님의 뜻과는 무관한 자기 열심 자기 영광을 쟁기는 종교적인 활동에 불과함을 말해 줍니다. 마치 당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종교지도자들처럼. 주님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판단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외적 능력이나 자기 의보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며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하느냐를 중요시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목자생활을 흡 없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 동기가 자기 영광에 기초한 것이거나 양에게 가르친 것과 다르게 산다면 역시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결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은사)을 행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이라**”(엡2:8,9) 그러나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라’는 것인지 능력을 행하지 말고 선한 종교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시 21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요,(요6:40) 예수님의 말씀(특히 산상수훈)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그 진실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히 지적이고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인격적인 차원(친밀함)입니다. 결국 주님이 보시는 것은 외식하는 주여! 주여 하는 말의 신앙이나 기적을 행하는 능력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행함의 신앙을 보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약2:26)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배우기에 힘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 III.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 말씀을 듣고 행하라(24-29)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가 어떤 자와 같은가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24,25)

“그러므로” 이 말씀은 ‘5장에서 7장까지의 모든 말씀의 결론을 이야기 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 하는가? 신앙생활을 오래했는가? 곁으로 드러난 외모가 훌륭한가? 그런 것들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을 들로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며 다른 하나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산상수훈은 듣고 감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foolish man)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평소 말씀

공부할 때 문제의식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시켜 인생관과 가치관을 확립하기에 힘듭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나가기에 힘듭니다. 이런 사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인생의 기초를 견고히 쌓고 그 내면은 점점 변화되어 어떤 시련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거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자는 말씀을 공부하되 형식적으로 공부합니다. 말씀에 인생의 기초를 쌓기기에 힘쓰기보다 자기 생각을 기초로 인생의 집을 지어갑니다. 이런 자는 인생의 기초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회피하고 요령껏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자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와디’라는 독특한 지형이 있습니다. ‘와디’(wadi)는 건기에는 말라붙어 있다가 우기에만 형성되는 강을 이르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름이 건기(乾期)이며 겨울이 우기(雨期)입니다. 한 해 동안 거의 비가 내리지 않다가 겨울이 되면 폭우가 내립니다. 어느 날 보통의 예상을 뛰어넘어 마구마구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서 개천을 넘어서면 거센 물줄기가 집의 기초에 부딪혀 무너지게 합니다. 그때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는데 반석위에 주추를 놓은 집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무엇에 신경을 씁니까? 건축자재도 중요하고 디자인, 인테리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이 크고 화려해도 나중에 건물이 흔들리거나 금이 가고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충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만 합니다.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아야만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깊이 파야 합니다. 돌을 깨고 평탄작업을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나중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집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집 잘 지었네.” “정말 지혜로 왔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행한다.**”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고 행하느냐, 듣고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수심판 때에 그 가족이 살아남을 작은 배를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홍수가 올까?” 의심했을 것입니다. “혹시 홍수가 나더라도 내 가족만 살면 되지”하면서 가족용 유람선을 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창6:22) “Noah did everything just as God commanded him.” 노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다 순종했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까지 암수 한 쌍씩 들어가도록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큰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노아는 명청하리만치 우직하게 순종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마침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에 큰 짚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온 천하가 물로 덮였습니다. 무릇 코로 숨 쉬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때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창7:23). 노아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26,27)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인생을 쉽게 편하게만 살고자 합니다.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 삽니다. 얼른 보면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인생의 시련이 닥쳐올 때 심하게 혼들리다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말씀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잡언 10:25절에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께 인생의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쉽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견고한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이론적으로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행함으로써 내면화되어야 합니다.

『신앙계』(1993년 7월호)에 보면 영화배우 남궁원 장로 부부의 자녀교육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 홍정욱 군은 하버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을 뿐 아니라 졸업할 때 3개의상을 받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양춘자 집사가 밝힌 천재교육의 비결은 세상 과외공부 대신 성경 과외공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세 아이에게 나는 한 번도 과외공부를 시키지 않았다. 그 대신 딱 하나 시킨 것이 있다. 바로 성경 과외공부였다. 전도사님을 초빙해서 저녁 시간에 온 가족이 가정예배를 드린 후 세 아이에게 성경공부를 가르친 일이다.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인물 중심으로 하다가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등 다양하게 성경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도사님께 건의 드리곤 했다. 어느 정도 지난 후에는 다른 분을 모셔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다. 그동안 여러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성경공부 선생님이 되어 주셨다. 때로는 외국 목사님까지 모셔서 성경공부를 하게 했다. 성경공부는 아이들이 유학 갈 때까지 계속했으며 방학 중에 귀국을 하면 다시 시작을 해 지금까지 이어오는 전통이 되고 있다. …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더구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커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어려서 확실한 성경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떤 과외보다 좋은 교육 방법임을 권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사상보다 인생의 가장 견고한 기초가 됩니다.

지난번 전대센터에 오신 김진경 총장님은 하나님의 주신 대 사명 창세기 1: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하라.**” 말씀을 깊이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주리고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돋고자 결단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북한 동포들을 돋고자 연변과기대와 평양과기대를 설립했습니다. 미국에서 수영장이 딸린 대저택에 살 수 있었지만, 연변과 평양에서 땅 두 칸짜리 기숙사에 살면서 학생들과 동고동락(同苦同樂)하였습니다. 학생들을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 교육을 시키고 도와주었습니다. 북한 각 곳에 짚주린 아이들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나눠 주고 덮을 이불을 지원했습니다. 그들을 돋다가 1998년에는 미국 CIA 첨자라고 오해를 받아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유서(遺書)까지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더 한 고통을 맛보고 순교까지 했는데 자신이 그 순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천국소망에 불탔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 말씀을 불들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계2:10)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벧전4:12,13) 그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서 오히려 자신을 고문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석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힘 있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는 86세의 노인이지만 청년처럼 박력이 있고 폐기 넘치는 인생을 사시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가 좁은 길을 가고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인 바 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영국에서 교수로 일하던 톰슨 박사도 감동을 받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양에 들어가서 무보수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또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순종을 만들어 내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반석은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3:11절에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므로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시므로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분, 참 소망과 기쁨을 주신 이 예수님이 반석이 아니고 무엇이 반석이겠습니까? 돈이 반석입니까? 명예가 반석입니까? 육체의 아름다움이 반석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12,13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인생에 비바람이 닥쳐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면 모든 공적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불이 타오를 때에 다른 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미모도 다 잿더미로 변하게 됩니다. 오직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20,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아 인생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 것도 깎매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기절했을 때도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죄수의 신분으로 총독 앞에서 섰을 때도 광풍을 만나 배가 파선하게 되었을 때도 독사에 물렸을 때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생의 비바람과 창수가 불어 닥쳐도 끄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더 당당하고 스페릿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의 기초를 견고히 놓고 그 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므로 인생에 어떤 시련과 역경의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찬송가 488장에서도 “이 몸에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28) 이는 그 가르치심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29)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시민의 현장(憲章)인 산상수훈(山上垂訓)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를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생활에서 행함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천국 시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시는 반석이 되신 분이십니다. 반석 되신 예수님께 인생의 기초를 쌓을 때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반석 되신 예수님께 인생의 기초를 견고하게 놓음으로써 어떤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할 때 예수님을 닮은 좋은 제자들이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 칭찬 받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